

서울

●창덕궁
창덕궁은 후원에 각양각색의 정자와 수만 그루의 수목과 화초가 가꾸어져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전통 정원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어 가족과 함께 거닐며 우리 고궁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02)762-8262

●남산식물원
서울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남산식물원도 추천할 만한 곳이다. 남산식물원에는 관엽식물, 다육식물, 선인장류 등 총 1,100종에 12,000여본의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데, 식물원 바로 옆에는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동물원도 있으며, 남산 산책길과도 연결된다. (02)753-2651

●홍릉수목원
홍릉수목원은 우리나라 희귀식물인 문배나무, 미선나무, 섬오리나무 등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희귀식물에 이르기까지 초목본 식물 2000여종 40,0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매주 일요일 수목원을 무료 개방하여 유서 깊은 옛 정취와 함께 자연 휴식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02)961-2651

●길동생태공원
하남시와 인접한 천호대로변 저습지에 조성한 길동생태공원에서도 고급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참나리, 팥배이 등의 야생 조화류가 여기저기 피어나고 말잡자리, 호랑나비가 호숫가를 선화한다. 귀여운 물총새와 꼬마물떼새가 먹이를 사냥하고 흰뺨검둥오리 부부가 호수를 누비는 광경도 만날 수 있다. (02)472-2770

부산

●비취해안 이기대~신선대
부산 남구의 이기대는 대도실 옆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해안자연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부산의 보배다. 갯바위 곳곳에서 진주달치와 따개비를 볼 수 있고, 비취 갈퀴덩굴 처녀바위 등 400여종의 식생이 자라고 있다. 이기대에 이어 백운포대

'텃빈 도시'서 일뜰휴가

립지와 신선대 뒷산에는 백선 마삭줄 곰솔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범어사등나무군생지(천연기념물 제176호)
금정산 범어사 입구 도로 양측에는 노송이 울창하다. 경내에는 100~130년생 참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이 혼생하고 있는데 등나무 군락은 범어사 등운곡에 약 450주가 자라고 있다. 등나무 꽃이 만발하는 때에는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모든 나무에 등나무 꽃이 피어 금정산 절경의 하나로 꼽힌다.

대구

●경북대학교 야외박물관
필라원이라고도 불리는 경북대학교 야외박물관은 곱게 깔린 잔디밭 위로 엄청나게 많은 석탑, 석불, 석불, 부도 등 주요 문화재들이 놓여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외박물관으로 유명하다. 특히 일렬로 줄지어진 목갈린 석불상과 문인석상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 야외 박물관 뿐만 아니라 경북대 박물관에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상당수 보존돼 있다. (053)950-6536

●남평문씨 본리세거지(인홍마을)
고려말 중국에서 목화를 들여온 문익점의 18세손 문경호가 옛 인홍사 절터에 터를 닦은 이곳에는 조선 말기 전통 한옥과 옛 정자가 있다. 대구시 민속자료 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광거당과 수봉정사, 인수문고가 있다. 문중서고인 인수문고에는 국내의 회귀고서 1만여권이 소장돼 있다. (053)637-5416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바다로 산으로 향하고 있는 요즘,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는다. 휴가철엔 오히려 도시가 더 한가하다.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가족과 함께 휴가지 못지않은 낭만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 안들이고 휴가를 즐길 만한 곳을 소개한다.
휴가문화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

●인천 문학경기장 월드컵 기념관
우리나라의 2002 월드컵 16강 진출 및 4강 신화 창조에 교두보인 인천문학경기장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다가선다. 기존의 홍보관을 월드컵 기념관으로 확대 개편해 월드컵 영상물 상영하고, 경기장 북측 스탠드에서 경기장 전체 설명 및 안내도 받을 수

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032)934-8873

대전

●대청호수
대청호는 1980년 금강종합유역개발로 조성된 맑고 아름다운 인공 호수로 대전, 충남북 일원의 상수원은 물론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젖줄이다. 대청호의 호반도로는 4계절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고궁·문화유적·박물관·식물원 찾아 비용 적게 들이며 낭만과 여유 '만끽'

있게 하는 등 가족과 함께 월드컵의 벽찬 감동을 나누기에 충분하다. (032)440-3993

●강화 은일자연사박물관
금속공예가인 이종욱 관장이 46년간 전 세계 60여 개국을 돌며 수집한 10만여 점의 표본과 자료들을 한데 모아놓은 사실 자연사박물관이다. 공룡, 곤충, 나비, 조류, 동물, 화석, 광물 등 희귀한 자료를

광주

●홍효동 도요지(문정사기 전시실)
무등산 동편 산록에 넓게 펼쳐져 있는 도요지로 총장사에서 광주호로 가는 금곡마을 일원에 7개소가 산재되어 있다. 분청사기 제작의 다양한 기법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분청사기 전시실(사적 141호)도 이곳에 있다.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한국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과 특색을 간직한 창덕궁에서 색다른 여유와 맛을 즐겨보자.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전지현과 정우성이 등장하는, 음료수 2%의 광고에 나오는 커피(선전문구)다. 휴가철을 맞아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갈증이 더욱 커지는 요즘, TV 광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새삼 실감나게 다가온다.

여행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존재가 언제나 목마르다는 사실, 항상 무언가 2%가 부족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자신에게 무언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성숙을 향한 순례에 나선다. 철이 든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 무언가 2%가 모자란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마치 구름에 덮인 산꼭대기처럼 인간의 시야에 가려져 있는 그 2%의 신비를 발견하기까지 무한한 세월이 흘렀다. 지구가 탄생한지 50억년 만에 생명체 최고의 꽃인 인간이 나왔고, 인류가 탄생한 지 200만년이 흘러 드디어 정신이 깨어나고, 존재의 깊추어진 2%가 발견되었다. 바로 부처님이 존재의 100% 완성(佛을 체함)하고, 그 길(道)을 우리

기 고

김홍근 문학평론가

日常의 갈증 禪詩로 적시자

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현재 가지고 있는 98%보다, 역설적으로 모자라는 2%에 있는지도 모른다. 98%의 일상은 모자라는 2%를 채우기 위해 목말라 한다. 98%의 자아에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불만족'에서 출발하여, 2%의 본래면목을 향하여 나아가는 '초발심'이 생기는 것이다. 일상에서 탈출하여 산과 바다를 향하는 바깥으로, 그 모자라는 2%를 채우려는 '발심'의 찬스이기도 하다.
존재의 이면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2%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극동에서는 그 2%를 채우는 것을 '선(禪)'이라고 불렀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 소중한 전통의 수혜자이다.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에서 확립되고 이 땅에 들어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선의 전통은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이다. 선은 불교의 정수(精髓)다. 조사들의 치열한 수행과 법의 등불을 계승하려는 끈질긴 노력 덕분에, 우주 진화의 최정점인 '선'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선을 배우려고 하는 구미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지성인들은 우리의 환경을 얼마나 부러워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그 '선'의 본질에 접근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있긴 있는데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비라고 한다. 그 세계는 일상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수행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그 맛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사들은 불가피하게 마음속의 뜻을 표현해야 할 때, '시'의 힘을 빌렸다. 시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일상을 벗어나는 정신적인 피서로는 이 요묘한 '선시'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최고다.
선시는 옛 선사들이 남긴 '정신적인 사리'이다. 앞서 간 선지식들은 우리에게 형형색색의 찬란한 그 보석을 남겨주었다. 올 여름 '선시의 맛'을 익혀보자. 그러면 앞으로 2%의 갈증이 날 때마다, 나름대로 해소하며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이란 바로 선사들이 존재론적인 갈증과 싸워 속 시원한 해답을 얻었을 때, 그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400년 전 조선시대의 진묵스님이 남긴 선시 한 수를 찬찬히 음미해보자. 가슴속이 호연지기로 가득 차며, 100% 존재하는 실감이 나지 않는가?
"땅 요를 깔고, 하늘 이불을 덮고, 산을 베고 누워 달 훑듯 쳐고, 구름 병풍 치고, 바다 술잔을 마신다. 취기가 돌고, 흥에 겨워, 일어나 춤을 추니 긴소매 자락에 백두산이 걸리누나!"
* 지면 사정으로 '문학속의 불교'는 습니다.

자연속에, 보물지대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분자
- ◆정원: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넓디넓은 부처님을 모시고 영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의회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배매자 성광수씨가 배매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배매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54-3733